

y "나는 늘 회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생을 통해서 알았다. 회전 ... 그것은 일종의 자아도취이며, 자아만족, 또는 자위행위이다. 기계는 원을 그리며 회전하면서 놀랍게도 초콜릿을 생산해낸다. 난 그 기계에 매료되었다."라고 뒤상 *Marcel Duchamp*이 말했죠. 저는 이피의 작업을 보면서 "큰 유리: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조차 벗겨벗겨진 신부 *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와 "초콜렛 분쇄기 No.1 *Chocolate Grinder No.1*"가 떠올랐습니다.

k (웃으면서) 왜 뒤상이죠? 뒤상의 "초콜렛 분쇄기 No.1"는 기계적인 운동 작용에 의한 욕망의 클라이막스와 정액으로의 은유인 독신기계가 아닌가요?

y 네, 이피 작가는 욕망과 상징보다는 장치와 기계들의 작동에 매료되어 있고 독신기계들은 생산하는 일, 생산되는 것 보다는 비생산적인 것, 교배할 수 없는 것, 또한 오이디푸스적 배치가 아닌 덩어리들을 출현시키고 있습니다.

k 이피는 이번 전시에서 얼굴에 부딪치는 것들을 소화 하지 않고 부딪치는 그 순간에 나오는 이야기와 날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가지는 주체화와 의미생성의 단계 이전에 촉수와 꿈틀거림 속에서 흡착되고 있는 차원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피는 '입면기 入眠期 환각 때의 환상'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이번 전시의 주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y 입면기 환각이 어떤 거죠?

k 꿈을 반쯤 깬 상태에서 겪는 환각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처의 불상이 있는 방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평소에 보던 불상이 갑자기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데 늘 보던 고정된 형상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다가오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었고 방문 너머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데 아무런 소리도 외칠 수 없었죠

y 저도 가위에 눌러 천장에 떠올라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소름돋은 적이 있어요(웃음)...꿈 얘기를 하시니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 꿈 환각의 흐름을 표현하고 이질적인 환경의 성격에 물체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기 위한 '전치 *Depaysement*'나 자동기술법 또는 꿈의 기술이 떠오르네요. 작가가 말하는 입면기 환각도 꿈이 되기 전에 나오는 환각이고 그러고보니 이피의 작업에서는 삼차원의 환상과 이차원의 그것이 별 구분이 없이 넘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 이피의 "The Cabinet of Fi Lee's Curiosities" 전시를 보면 '감기곤충 *The Cold Bug*'이 나오는데 작가가 감기에 걸린 것을 감기벌레로 만들고 감기벌레에 대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생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말씀하신대로 '내 얼굴의 전세계'는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생물로 만든 것들을 찰흙으로 만들어 붙여나가는 행위입니다. 이피에게 중요한 것은 배치의 강도 *strength*와 모티브의 단절없는, 끊임없는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의 서사들이기 때문에 작가가 'Monkey to the West', 'Her Body Puzzle' 등의 전시를 통해 보여준 기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개별적인 독창성을 가진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마구 뒤섞여 있는 다양체로서의 기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y "제 몸은 이렇게 사지가 8개이지만 저한테 들어온 사물들이 부딪쳐 재형성된 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피는 "...그래서 저는 다리가 8개인 문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개, 저는 이상하게 문어를 동일시 한 작업이 많아요. 문어랑 오징어"라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k 그래서 "내 얼굴의 전세계"도 얼굴이지만 8개의 척수로 나와 있는 것이군요. 이것도 다리가 8개고... 그런데 왜 이피는 문어랑 오징어를 동일시하는 걸까요?

y 이피는 "문어는 심해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고 왜냐면 발광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선 같죠. 심해의 우주선 같은 것들인데 오징어 잡아 배나 물으로 건져지면 그렇게 보기 싫은 것들이 없잖아요. 흐물거리고 빛도 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피는 문어와 오징어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k 이피의 작업 프로세스를 들으니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의 '환상동물 이야기 *Book of Imaginary Beings*'나 동아시아 고대의 신화인 '산해경 *山海經*'이 떠오릅니다. 특히 사라진 신들이 되어버린 산해경에는 중국과 변방지역의 기이한 사물, 인간, 신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에 대한 그림이 함께 실려 있는데 이러한 신화속에서 변경 밖의 모든 기이한 모습의 이민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은 무의식에 감추어진 욕망들의 표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해경에 주_紬를 달은 곽박 *郭璞*의 서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른바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한 것을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이른바 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 괴상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사물은 스스로 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린 후에 괴상해진다.
괴상한 것은 과연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사물이 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방의 오랑캐는
옷 짓는 베를 보고 삼씨인가 의심하고,
월나라 사람들은
담요를 보고 솜털이라고 놀란다.
대개 그 익히 보아온 것을 믿고
그 드물게 듣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y 산해경에는 온갖 괴물들이 제각각 출현하지만 일정한 즐거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편화하는 이미지들의 행진이 있을 뿐이죠. 산해경은 '산경山經' 5권, '해경海經' 13권으로 모두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산경'의 '남산경南山經'을 보면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같은데 아홉 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k 신을 만들고 나서는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네요 (웃음).

y 산해경은 책이 아니라 원래 그림이었고 그 그림을 설명해 놓은 말이 오늘날 남아서 글이 되었습시다. 이미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것은 장과 혈액순환에 좋다."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의미를 해석하거나 탐구하기 보다는 물이 흘러가듯이 보는 流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k 이피가 자신의 작업을 관객들이 상상을 하고 자기만의 소설을 써가며 읽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애기꾼들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판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상상하면서 읽어가

는 조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디터 다니엘스는 *Dieter Daniels*는

'상호작용의 전략들 *Strategies of Interactivity* 참여로서의 감수 *感受*-모더니즘의 라이트모티프 *動機 Reception as Participation-A Leitmotif of Modernism*'라는 글에서 뒤샹의 '예술-계수 *Art-Coefficient*'에 대해 말합니다. '예술-계수'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표현하는 것 사이의 산술적 관계를 말하는데 이 간극에 의해 어떠한 예술작품도 관객에게는 작가가 의도한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으며 더 많은 오해가 있을수록 개인의 '예술-계수'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미학적 경험들을 하는 관객에게는 스스로 하나의 구성적 역할이 지워지는데 그것은 관객이 "그의 기여를 창조적 행위로 추가함으로써"라고 뒤샹은 확인했던 것이죠. 하나의 작품은 그것을 감상하는 혹은 읽는 그리고 기여를 혹은 거부를 통하여 살아남게 하는 관객들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말이지요.

y 어떤 문장도 작품도 전달자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또 감상자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은 작품을 거부하는 것 까지도 감상자의 몫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결국 작업이 열려있을 수록(예술 계수가 커질수록)오해의 폭도 커진다는 것이겠네요.

k 조금 어려운 말로 폴 발레리 *Paul Valéry*는 "결정론은 세계를 표상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며 비결정론은 그 세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화된 또는 객관적인 점수 혹은 가치의 눈금이란 것은 없고 전략은 구성원의 몰개성화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웃음) 쉽게 말하자면 이피가 좋아하는 작가인 장 뒤뷔페 *Jean Dubuffet*가 예술의 진정성은 학습 없이 발현되는 인간의 본성으로 담보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세련되거나 우아할 필요도 없이 내 안의 원초성과 상상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래나 유리 등의 폐물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전통적 미술재료를 거부하고 버려진 것이 가치를 받도록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벽의 낙서와 아이들의 드로잉 그리고 정신 이상자의 그림 등은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개인의 기록들인데 장 뒤뷔페가 관심을 가졌던 미술은 바로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k 해석과 의미로 잠겨있지 않은 인덱스 *Index*가 우리를 멍하게, 오싹하게, 솟구치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칠판 위로 손톱을 긁어서 나는 소리에도 있고 빛으로 태우고 읽는 CD-Rom, DVD-Rom에도 조폭의 문신에도 있으며 서예는 대표적으로 인덱스(*필체 자국과 흔적*)를 감상 포인트로 삼

고 있기도 합니다. 이피 작업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독신기계는 탕화(禿髮)의 선과 안료로 금빛 광휘를 내는 부처를 지시하는 인덱스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피는 만봉 이치호의 제자 원미희로부터 전수를 받아 왔습니다.

y 작가는 자신은 뿔속부터 기독교라 불심(佛心)보다는 테크닉으로 불멸성을 갖고 싶어 탕화를 배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웃음) 작가를 매혹시켰던 것은 여래의 불멸성 보다는 고려시대 불화(佛畫)가 가지고 있는 색의 아름다움이었고 그 아름다움을 지금까지도 불멸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매혹이었습니다. 불화 선생님도 소승불교로서 탕화를 그려나가는 그 수행과 과정에 중요성을 두되 형상에는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래의 불멸성과 내 작업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이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k 불화는 대대로 본이 있어 본대로 그리는 것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피는 불멸한 존재보다는 오히려 불멸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요?

y 네, 이피는 바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모여 불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테크닉으로 불멸성을 가지려 할 뿐, 의근(意根)에 빠지지 말고 의상(意象)에도 집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k 탕화에서는 선과 선의 그 필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피 작업에서 나타나는 탕화의 인덱스에서 눈에 띄이는 부분은 금 안료로 선을 표현하는 그 필력과 먹의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수묵을 기본으로 먹의 농담(濃淡)에 따라 검게 칠하는 배경과 금 안료의 선으로 강렬하게 형상화하는 독신기계와 장치들 그리고 오방색은 무속적 제의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y 네, 이피는 예술가란 학자보다는 영매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피의 독신기계들은 부조리하고 시니컬한 상황에 주어져 피드백을 하는데 기계들은 마치 특정한 무대나 장소에 놓여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k 호모 세파라투스(Homo Separatus)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피는 극작가인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극장에 많이 갔고 주로 어른들 연극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작가에게 왜 당신의 기계들은 암흑이나 무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환영들처럼 보이는 것인가 물었고 작가에게 극장이란 사람들이 심각하고 무서우며 단지 무서웠던 기억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게 정말 크게 뇌리에 남았다고 하면서 호모 세파라투스라는 연극의 제목을 저에게 또렷한 발음으로 말해

졌습니다. 암흑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하얀 탈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y 혹시 도스토예프스키 *Dostoevskii* 좋아하시나요?

k '지하로부터의 수기' *Notes from Underground* 를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웃음)

y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병적인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남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인간이다..."라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살기 위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을 알면서도 해가 뜨게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제사장과 그 부족의 구성원들의 장치는 다름아닌 숭고미였고 인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위대한 정신들의 연명들도 끝없는 자기 오해속에 불타는 높이 오르려는 숭고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이상학의 경외스러움 앞에 아르토 *Antonin Artaud*가 말한 "살자, 우선 살자"는 말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k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달리 *Salvador Dalí* 작업 중에 그런게 있어요. 이피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달리가 인간을 그리는 건 벌레로 그리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에서 나왔다고 물고기가 아니며 오징어라고 해서 심해와 연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해경에서 짐승과 요괴들을 먹을 것으로 서술하는 것처럼 한 차원 더 넘어가 메타차원으로 가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살자, 우선 살자"는 무슨 말인가요?

[끝]